

시의원 자동차는 미세먼지 배출 안하나

김익주 광주시의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제외' 요구 논란 "특권만 찾는다" 비판 여론...市, 환경부·행안부에 해석 의뢰

광주시의회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자치구 의회에서 의원들 차량 2부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주민이 뽑은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한 정당한 요구라는 평가도 있지만, 주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특권만 찾고 있다는 날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일색의 광주지역 시·구의회의 경우 관광성 국외 연수, 가짜 출장, 보좌관 급여 착복 등 물이나 추태를 빚은 의원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지방의원 차량 2부제 제외 요구'에 대해 우

호적인 여론은 크지 않아 보인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 '시의회 의원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질의했다. 김익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의원들은 공공기관 직원이 아니며,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차량 이용이 필요하다"며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정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본청과 구청, 산하기관, 공사·공단, 교육청, 학교, 공기업, 국립대 병원에서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관 소속 직원과 업무용 차량은 출수 일에는 차량 등록 번호

끝자리가 홀수 차량만, 짝수 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민원인·임산부·취약계층의 차량, 친환경 차·간접차량·통근버스는 2부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원들은 의회 사무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회 소속 직원'으로 보고 2부제 대상에 포함했다.

광주시는 의원들이 대상 기간에는 회기가 열리지 않아 의회 사무실에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2부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일단 결론을 미루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따를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동참하는 공무원들 시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 '의원들을 제외시켜도 되는지' 질의했다"며 "정부 지침이 나오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차량2부제 제외 요구는 자치구와 구의

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서구는 "의원들은 제외해달라"는 구의회의 요청이 있지도 않았는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동시에 구의원 차량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했다. 서구 관계자는 "국회의원 차량이 차량 2부제에서 제외되고 있어 자체적으로 지방의원 역시 이에 준한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고 예우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반론이 나온다.

북구 일부 의원들은 최근 "서구 의원들은 차량 2부제에서 제외되는데, 왜 우리는 제외가 안되느냐"고 의회 사무국에 물었다. 북구 의원들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시민들 시선도 있고, 도의상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회 사무국 답변을 듣고 이를 수용하면서 잠잠해졌다.

/김형호·정병호·김민석 기자 khh@

전남 해양바이오센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예비창업자 제품개발·전남어촌특화상품 아이쿱 입점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가 전남도 해양수산기업에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로 도내 해양수산업 고부가가치 및 청년고용창출, 수출시장 확대,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5일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남도 출연기관으로 설립한 뒤 도내 해양생물 연구개발 및 가공 활성화, 생산지원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업무를 통해 도내 해양수산업의 제품 개발 및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해양수산물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으로 3년간 총사업비 51억원을 들여 지난 2018년부터 도내 예비창업자 및 해양수산업 가공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창업, 소재개발 및 제품기획, 제품개발, 브랜드개발, 판매 및 수출(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8년 16개 시·군, 46개사 등에 96사

를 지원해 149명의 고용 창출(청년 56명), 신규창업 9개사, 전년대비 수혜기업 매출증대 279억원, 758만 달러 수출 등의 성과를 내고, 기업지원 설문조사에서도 92.4%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2019년에는 14개 시·군 48개사 등에 73차례 지원, 수출 695만 달러, 신규창업 6개사, 신규 고용창출 290명(청년 120명), 수혜기업 매출증대 전년대비 13.8%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전남지역 어촌계, 지역 수산가공기업,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연계해 제품 개발 및 생산을 지원, 전남어촌특화상품을 아이쿱 생협 자연드림의 온오프라인에 입점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또 지역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지역의 대표적인 양식해조류 8종, 지역 특산해조류 8종의 추출물 12가지의 기능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동물실험을 통해 그 효능을 확인했다.

2018년 16개 시·군, 46개사 등에 96사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소방 대원 격려하는 김영록 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5일 오전 목포소방서를 찾아 성탄절 특별 경계근무 중인 목포소방서 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광주시, 어린이안전체험관 리모델링 추진

지하철 위기탈출 체험 추가 내년 3월 개관 예정

광주시는 시청사 1층에 위치한 '어린이안전체험관'의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리모델링은 체험 프로그램 추가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과 노후 시설의 개보수 위주로 진행된다.

안전체험관은 2015년 11월 9일 시청사 1층에 개원한 이후 유치원과 초등학생(5-13세)들이 안전교육과 안전체험을 하

는하는 교육 명소로 자리잡아 연 2만 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안전체험관에서는 '놀면서 배우는 안전교실'이라는 주제로 70분 동안 안전벨트, 완강기, 심폐소생술, 교통안전, 비상호출벨, 지진대피, 화재진압, 구조요청신고, 비상탈출구, 승강기 탈출 등 10여 종의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체험프로그램에 지하철 위기탈출 체험이 추가된다.

기능이 떨어진 노후 시설은 철거한 뒤 현장감 있는 화재 영상과 물, 연기 등을 이

용해 실제 상황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부모와 관계자들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내년 2월 20일까지이며, 3월 개관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리모델링에 앞서 어린이들의 위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컨설팅과 안전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했다.

김경미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광주시는 국제안전도시로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다양한 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다양한 상황의 안전 체험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 체험관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후계농업경영인 11명 모집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11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후계농에 선정되면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및 기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을 최대 3억원, 연리 2%(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 22일까지다. 사업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2-613-5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원금 두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신청하세요

전남도 내년 1월 10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26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신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은 전남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3년 동안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을 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현재 2049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구직활동비, 창업

자금, 결혼자금 등 청년의 미래 설계를 위한 씨앗자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만18-39세 청년으로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최근 180일 이내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을 갖고 있으며 ▲본인 근로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추진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사업 최종 선정자는 시군 신청자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 심사, 가구소득인정액 조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쳐 2월 중순께 발표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평동3차 일반산단 진입도로 오늘 개통

산단~국도13호선 1.91km

광주시는 평동 3차 일반산업단지 진입 도로를 26일 개통한다고 25일 밝혔다.

개통 구간은 광산구 월전동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와 국도 13호선을 연결하는 연장 1.91km, 폭 20m, 양복 4차선 규모의 도로다.

광주시는 237억원의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해 지난 2016년 착공했다.

앞서 지난 7월 국도 13호선 확장 공사가 완료됐고 평동 3차 산단 진입도로까지 개통되면서 기존 평동산단 사거리 주변 교통 혼잡과 나주방면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특히 광주시는 기존 입주 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을 물론 신규 조성 중인 평동 3차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